

# “조직력 극대화... 점유율·압박 축구 하겠다”

K리그 명예기자 모집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K리그의 2016시즌 상반기 소식을 전할 명예기자를 모집한다.

명예기자는 K리그 클래식과 챌린저를 비롯한 U-18리그인 K리그 주니어 경기 등 축구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주요 포털 사이트 및 K리그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포스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연맹의 SNS를 통해 전하는 역할을 한다. 또 연맹에서 주관하는 K리그 올스타전, K리그컵 여자대학클럽 축구대회, K리그 시상식 등 행사에 관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기회를 갖는다.

2015시즌에는 명예기자를 통해 ‘K리그 클래식 12세 쉼전’, ‘K리그, 웃음을 부탁해’, ‘K리그 용어사전’, ‘K리그 직관 사용 설명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 큰 인기를 얻었다.

모집기간은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이며 모집 분야는 디자인, 영상, 웹툰, 글 부문이다. 합격자는 17일에 개별 통보한다. K리그 팀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 축구팬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활동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이다.

선발된 명예기자에게는 K리그 현장을 취재할 수 있는 출입증과 취재 지원비가 제공되며, 우수 명예기자에게는 특별 취재 기회가 부여된다. 연맹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와 이벤트에 우선 초청되고, 축구 산업 종사자 특강 및 관련 분야의 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축구팬은 K리그 홈페이지(www.kleague.com)를 참고해 모집 분야별 구비 서류를 이메일(kleague@kleague.com)로 보내면 된다. 모집분야별 우수한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추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지원자는 우대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일본으로 3차 전훈 떠난 광주 FC 남기일 감독

### 태국 전훈 체력 향상·포지션별 훈련 성과 3~5차례 연습경기로 장·단기 계획 마련

‘남기일호’가 클래식 안착을 노리며 3차 전지훈련을 떠났다. 무대는 일본 미야자키다.

프로축구 광주 FC가 10일 일본 미야자키에 3차 전지훈련 캠프를 차렸다. 광양에서 위빙업을 시작한 광주는 1월20일부터 지난 5일까지 태국에서 체력을 업그레이드 한 뒤 한 박자 숨을 골랐다.

고단한 전지훈련 뒤 달콤한 설연휴를 즐긴 광주 선수단은 ‘클래식 안착’이라는 2016시즌 목표를 외치며 세 번째 캠프지로 향했다.

새로 팀에 합류한 브라질 출신의 장신 수비수 웰링톤은 물론 앞선 태국 캠프에서 허벅지 부상으로 조기 귀국을 했던 주장이 종민도 미야자키행 비행기에 올랐다.

여유를 부릴 시간도 없이 광주의 독한 훈련이 시작됐다. 이날 오후 캠프지에 도착한 선수들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바로 스피드 피크 끈을 조여매고 그라운드에 올랐다. 강하게 선수들을 이끌며 ‘압박’을 더하겠다는 것이 남기일 감독의 이야기다.

남 감독은 “설연휴기간 쉬다 왔기 때문에 바로 훈련을 시작했다”며 “지난 태국 훈련을 통해서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올라왔고, 포지션별 트레이닝 훈련의 성과를 봤다. 하지만 더욱 압박훈련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공격적인 압박, 전

방압박을 준비하겠다. 또 수비 빌드업을 통해 공을 많이 소유하는 축구를 만들겠다”고 3차 전지훈련을 시작하는 소감을 밝혔다.

남 감독은 이번 전지훈련기간 3~5차례 연습경기를 진행하면서 2016시즌의 장·단기 계획을 마련할 생각이다. 스쿼드와 조직력이 구상의 중심이다. 스쿼드와 조직력은 각각 광주의 최대 약점과 장점이다. 전력층이 얇은 광주는 시즌이 진행될수록 스쿼드의 한계를 노출하면서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이었다. 반면 광주는 특유의 조직력으로 약점을 만회하면서 클래식식의 경쟁한 팀들을 긴장시켰다.

남 감독은 “이번 캠프를 통해서 두 개의 스쿼드를 만들려고 한다. 실전을 하고, 미팅을 하면서 확실한 전력을 만들겠다. 지난 시즌에 비하면 확실히 팀이 목격해진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점으로 꼽히는 ‘조직력’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남 감독은 “조직력이 어렵다. 새로운 선수들도 많고 기존 선수들이 빠지면서 아무래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조직력이 부족하다. 조직력을 극대화하는 게 이번 캠프의 주요 목표”라며 “다행히 정조국 등 새로 합류한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이 올라왔고 전술적인 부분에서도 팀에 잘 맞춰져



광주 FC의 남기일 감독이 클래식 안착을 목표로 일본 미야자키에서 3차 전지훈련을 지휘한다. 사진은 2차 전지훈련 캠프가 차려졌던 태국의 무앙통 유나이티드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가고 있다”고 밝혔다.

시즌 개막까지 D-30. 눈 앞에 새로운 도전의 무대가 보이는 만큼 마음은 급해졌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겠다는 남 감독이다.

남 감독은 “매 시즌 격정으로 시작한다.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도 내시지만 급하게 갈 생각은 없다. 팀을 만드는 시간으로 삼고 준비 잘해서 돌아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광주의 미야자키 캠프는 오는 25일 까지 계속된다. 광주의 2016시즌 첫 경기는 3월12일 포항 스틸러스와의 원정경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윤성빈 아시아 최초 월드컵 스퀘레톤 우승

# 썰매 입문 4년만에 세계 정상... 평창 金 보인다



4년 전 평범했던 고교생 강광배 체대교수 지도 3개월 뒤 국내 우승 파란 ‘썰매계 볼트’마저 꺾어

불과 3년여 전만 해도 윤성빈(23·한국체대)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운동신경 하나는 친구들 모두 인정했다. 키가 178cm로 그리 크지 않은 윤성빈은 고등학생 시절 제자리 점프로 농구 골대를 잡을 만큼 순발력이 뛰어났다.

이런 운동신경을 알아본 체육 선생님이 한국 썰매의 개척자인 강광배 한국체대 교수에게 소개하면서 윤성빈의 인생은 달라졌다. 한국 썰매의 역사도 바뀌었다.

2012년 6월 한국체대에서 열린 썰매 종목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윤성빈은 15위에 그쳐 탈락 대상이었다. 어떤 운동도 전문적으로 해 보지 않았던 윤성빈은 선발전 당일 오전에 체육선생님의 부름을 받고 곧바로 선발전에 참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광배 교수가 보는 눈은 달랐다. 썰매 선수로서 최적의 재능을 가졌다고 판단한 강 교수는 전격 윤성빈을 발탁했다. 강 교수의 판단은 옳았다.

윤성빈은 강 교수의 지도로 불과 3개월여 훈련을 쌓은 뒤 그해 9월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 스타트대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꺾고 우승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2016년 2월, 윤성빈은 세계 스퀘레톤 정상에 올랐다.

윤성빈은 지난 5일(한국시간)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열린 국제봅슬레이스퀘레톤경기연맹(IBSF) 2015-2016시즌 월드컵 7차 대회에서 1, 2차 시기 합계 2분18초26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세계 최강의 마르틴스 두쿠르스(32·라트비아)를 마침내 넘어섰다. ‘스퀘레톤의 우사인 볼트’라고 불리는 두쿠르스는 올 시즌 6번의 대회에서 모두 금메달을 쓸어담은 선수

### 스퀘레톤 동계올림픽 향해 쾌속 질주

썰매에 얽들어서 인공얼음으로 된 트랙을 고속으로 질주하는 경기. 1928년과 48년 생모리츠대회에서 첫 선을 보였으나 한동안 종목에서 제외됨.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대회부터 정식종목으로 다시 부활

준비 썰매에 타기 전 트랙 코스 구성하며 준비

손잡이

최대길이 1.2m

범퍼

러너

가속 출발점까지 30초내 도달해야 함

헬멧 롤리카보내이트 소재 유선형 디자인, 강력한 충격 흡수 가능

신발 7mm 스파이크 장착

올라타기 출발점에 닿기 전 까지 썰매에 올라타야 함

**2015-2016 월드컵 기록**

대회	기록	순위(1등과 격차)
1차	1:55.01	12위(+2.11)
2차	1:55.60	4위(+0.87)
3차	1:41.16	3위(+0.88)
4차	1:48.76	2위(+0.48)
5차	1:38.73	2위(+0.38)
6차	1:45.24	3위(+0.93)
7차	2:18.26	1위

몸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시속 130km에 달하는 빠른 속도의 썰매를 조종

다. 한국 썰매(봅슬레이·스퀘레톤·루지)의 역사는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와 비교도 되지 않는다. 강 교수가 이 종목에 뛰어든 것이 불과 10여년 전이다. 100년 가까운 역사와 전통을 지닌 유럽, 북아메리카에 비해 환경이 열악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한국이 지난 2011년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정부와 기업이 발 벗고 지원에 나섰다. 윤성빈의 천재성과 피나는 노력에 든든한 지원이 더해지면서 한국 스퀘레톤은 마침내 세계를 제패하기에 이르렀다.

윤성빈은 스퀘레톤 ‘신성’에서 ‘괴물’로 진화했다. 세계 썰매계는 윤성빈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신기할 정도로 기량이 급속히 늘었다’고 찬사를 늘어놓는다.

윤성빈은 이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바라본다. 썰매는 다른 어느 종목보다 트랙에 대한 적응도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윤성빈이 현재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곧 완공될 평창 트랙에서 끝없이 반복 훈련을 한다면 ‘올림픽 금메달’의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콜핑 임수정, 제8대 여자씨름 천하장사

아웃도어 전문업체인 콜핑 여자씨름단 임수정(사진)이 10일 제8대 여자씨름 천하장사(무제한급)에 올랐다.

콜핑 여자씨름단은 임수정이 이날 충남 홍성군 홍주문화체육관에서 열린 ‘2016 홍성 설날장사씨름대회’ 천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임 수정은 이날 모든 체급에서 출전하는 천왕전에서 결승에 오른 조현주를 2-0으로 누르고 8대 천하장사를 거머쥐었다.

지난해 10월 국내에서는 처음 창단된 콜핑 여자씨름단은 천왕전 우승과 함께 양윤서(매화급 60kg 이하)와 임수정(국화급 70kg 이하)이 지난해 설날대회에 이어 각 체급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쾌거를 이뤘다.

콜핑 박민영 회장은 “민속 스포츠인 씨름을 널리 알리고 아웃도어 산업 육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 몸심양면 후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 유럽 축구팬, 입장권값 인상에 집단행동

유럽 축구팬들이 치솟는 입장권 가격 때문에 단단히 뿔이 났다.

10일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고틀립-다임러 슈타디온.

도르트문트와 슈투트가르트의 2015-2016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8강전이 치러지던 전날 24분께 원정 서포터스 좌석에서 갑자기 수백 개의 테니스공들이 그라운드로 날아들었다. 주심은 급히 경기를 중단시켰고, 선수들은 테니스공을 그라운드 밖으로 던져내야 했다.

도르트문트 팬들은 이에 앞서 키오프 이후 20분이 지난 때까지 서포터스석에 앉지도 않고 선 채로 경기를 지켜봤다. 이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입장권 가격 때문이다.

슈투트가르트는 이날 원정팬들에게 입장권은 19.50유로(약 2만6000원), 가장싼 좌석은 38.50유로(약 5만1500원)의 가격을 책정한 가운데 일부 좌석은 70유로(약 9만3000원)까지 받았다.

분데스리가 구단들의 입장권 평균 가격이 약 30유로(약 4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비교적 높게 책정된 터라 도르트문트 서포터스들은 ‘축구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필름까지 내걸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리버풀 팬들이 선덜랜드와 홈경기에서 후반 32분 집단 퇴장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리버풀 구단이 입장권 최고가격을 59파운드(약 10만원)에서 77파운드(약 13만원)로 올리는 등의 가격 인상을 발표한 것에 대한 항의였다. 서포터스들은 77파운드에 착안해 경기 시작 77분이 지난 후반 32분 집단 퇴장을 반감을 표실했다.

한편, 영국 일간지 더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 평균 입장권 가격은 무려 53.76파운드(약 9만3500원)에 달해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는 50.83파운드(약 8만8400원)로 나타났다.

/연합뉴스